

고교생들의 구강보건의식 행태에 관한 연구 -경기 이천시 소재 고교-

유수민[†] · 안금선¹

동우대학 치위생과, ¹경북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Dental Health Awareness of High School Students

Su-Min Yoo[†] and Geum-Sun Ahn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u College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 Bok College

ABSTRACT In this research, dental health awareness of 3rd graders of high schools in Icheon-city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us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s the basic data for school dental health program, education direction, and educational purpose. The research was done from Sep. 23. to Oct. 5 and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survey. (1) 85.0% of the students brush their teeth once or twice a day and more female students brush their teeth 3 times a day than male students. (2) 77% of the students had experienced dental caries and 38.0% of the students have periodontal disease, which has lower percentage than cavity. (3) Most of the students can not go to the dentists because they do not have time and 84.0% of the students have been treated in dental clinics so this tells that most of the students had experienced dental treatment. (4) 46.8% of the students had interests in dental health and male students showed more interests than female students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5) Most of the students hear the importance and information of dental health from mass media such as TV and radio or from people around. The research shows that most of the students do not get periodic dental checkups. (6) 80.8% of the students had never taught dental health education for improvement of dental health and 76.2% of the students think that the dental health education is needed.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der. (7) Most of the students think that the dental health education is needed to prevent cavity and gingiva disease and it shows that more students tend to attend the dental health education. (8) 69.3% of the students think that brushing your teeth is important to maintain good dental health and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der. Most of the students weren't aware that periodic dental checkups, right brushing, and using fluoridic toothpaste is effective for cavity protection. (9) After looking into the knowledge of the students on dental health, it shows that the knowledge is low and there is no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der.

Key words Icheon-city, High school students, Dental health knowledge

서 론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등의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구강보건의 개발과 구강건강의 기틀이 이루어지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의 개발이 긴요한 과제이다¹⁾. 학교구강보건이란 학교에서 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생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노력과정²⁾으로 학교교육의 목적이 인간행동, 특성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보건교육에서 추구하는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의 변화는 학교교육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³⁾.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구강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여

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대부분 치아 상실원인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⁴⁾으로 밝혀져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은 한국인의 구강건강을 악화시키는 중대구강병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식증은 개인의 노력으로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지역사회의 조직적인 공동노력으로 관리할 때 더욱 효율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공중보건사업을 뒷받침 하고자 1995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공중보건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⁵⁾. 구강보건의 관리면에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특수성을 지니므로 구강보건을 위한 관리 및 예방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⁶⁾, 김⁷⁾은 학생과 교직원, 가정 및 학교치과 의사의 궁극적인 협조와 공동협력으로서 만이 학교구강보건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김⁸⁾은 구강보건교육은 교육부의 학교보건과목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지도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Stoll⁹⁾은 학교구강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켜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생활 태도와

[†]Corresponding author
Tel: 033-639-0671
Fax: 033-639-0670
E-mail: budde7@duc.ac.kr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일부인 구강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 연령층에서는 우식증의 발생률이 매우 높고, 점진적으로 치주병을 야기할 수 있는 치은염도 발생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치아우식증이 계속 진행되는 연령이며 치주병이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예방관리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여건상 과중한 상급학교 진학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연령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강보건관리가 소홀해 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저자는 청소년기의 구강보건실태 및 행동적인 특성을 고교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의 전반적인 관리실태와 학교구강보건 실시현황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구강보건위생교육의 중요함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한 고등학교 3학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23일 부터 10월 5일 까지였다. 설문내용은 구강보건관리실태, 학교구강보건교육 실태,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 및 인식도, 구강보건지식도 등으로 구성하였고, 1차 방문하여 사전 설문조사 후 수정 보완하여 2차 방문에서 각 반별로 사전 설명을 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하여 직접 수거하였다. 전체 503부를 수거하였으나 본 연구에 부적절한 것을 제외한 437부를 분석자료로 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구강보건 관리 실태와 학교 구강보건교육 실태,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 및 인식도, 구강보건 지식을 살펴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를 실시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이 여학생이 49.9%, 남학생 50.1% 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여학생	218	49.9
남학생	219	50.1
계	437	100.0

1. 구강보건 관리 실태

1) 잇솔질 횟수

전체적으로 하루에 잇솔질을 1~2회 하는 학생이 8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회 12.0% 순으로 나타났으며, 4회 이상 하는 학생과 잇솔질을 하지 않는 학생은 각각 1.0%, 3.0%로 매우 적었다. 성별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하루에 잇솔질을 1~2회 하는 학생이 각각 83.0%, 86.0%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표 2. 잇솔질 횟수

구 분	1~2회	3회	4회 이상 안 한다	계	χ^2 (df)	p
여학생	181 (83.0)	31 (14.0)	- (3.0)	218 (49.9)	4.46 (3)	0.216
남학생	189 (86.0)	22 (10.0)	3 (1.0)	219 (50.1)		
계	370 (85.0)	53 (12.0)	3 (1.0)	437 (100.0)		

2) 충치 경험

충치가 있는 학생이 77.0%로, 그렇지 않은 학생 23.0% 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81.0%로 여학생 72.0% 보다 충치가 있는 학생이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75$, $p<.05$)(표 3, 그림 1).

표 3. 충치 경험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여학생	158 (72.0)	60 (28.0)	218 (49.9)	4.75* (1)	0.029
남학생	178 (81.0)	41 (19.0)	219 (50.1)		
계	336 (77.0)	101 (23.0)	437 (100.0)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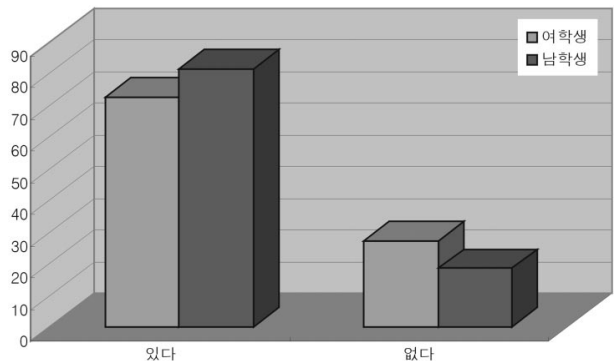


그림 1. 충치 경험

3) 치주질환 경험

치주질환이 없는 학생이 62.0%로 치주질환이 있는 학생 38.0% 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44.0%로 여학생 31.0% 보다 치주질환이 있는 학생이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54$, $p<.01$)(표 4, 그림 2).

표 4. 치주질환 경험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여학생	68 (31.0)	150 (69.0)	218 (49.9)	7.54** (1)	0.006
남학생	97 (44.0)	122 (56.0)	219 (50.1)		
계	165 (38.0)	272 (62.0)	437 (100.0)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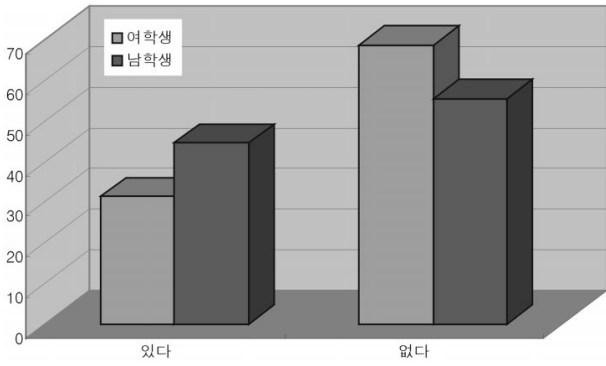


그림 2. 치주질환 경험

4) 치과치료 경험

치과치료 경험이 있는 학생이 8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치과치료 경험이 없는 학생은 16.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커다란 차이 없이 대부분이 치과치료경험을 하였다(표 5).

표 5. 치과치료 경험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여학생	182 (83.0)	36 (17.0)	218 (39.4)	0.11 (1)	0.739
남학생	186 (85.0)	33 (15.0)	219 (50.2)		
계	368 (84.0)	69 (16.0)	437 (100.0)		

5)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는데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병

표 6.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구 분	병원에 갔다	겉이 나서	갈 시간이 없어서	경비가 부담스러워서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타	계	χ^2 (df)	p
여학생	31 (14.0)	43 (20.0)	53 (24.0)	6 (3.0)	38 (17.0)	47 (22.0)	218 (49.9)	8.75 (5)	0.119
남학생	35 (16.0)	32 (15.0)	60 (27.0)	18 (8.0)	38 (17.0)	35 (16.0)	219 (50.1)		
계	66 (15.0)	75 (17.0)	113 (26.0)	24 (5.0)	76 (17.0)	82 (19.0)	437 (100.0)		

표 7. 현재 가장 불편한 점

구 분	입안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난다	치아가 아프거나 빠진 치아가 있다	뜨거운 것, 차가운 것에 시리다	입을 벌리고 다물 때 소리가 난다	외상이 있다	불편한게 없다	계	χ^2 (df)	p
여학생	31 (14.2)	18 (8.2)	48 (22.0)	11 (5.0)	16 (7.3)	94 (43.1)	218 (49.9)	16.29** (5)	0.006
남학생	55 (25.1)	34 (15.5)	34 (15.5)	11 (5.0)	11 (5.0)	74 (33.7)	219 (50.1)		
계	86 (19.6)	52 (11.8)	82 (18.7)	22 (5.0)	27 (6.1)	168 (38.4)	437 (100.0)		

**p<.01

원에 가지 않은 학생이 2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7.0%, 겉이 나서 17.0% 순으로 나타났다. 경비가 부담스러워서 병원에 가지 않은 학생은 5.0%로 비교적 적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20.0%가 겉이 나서 병원에 가지 않았고, 남학생은 27.0%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가지 않은 학생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6) 현재 가장 불편한 점

입안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는 학생이 1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뜨거운 것, 차가운 것에 시리다 18.3%, 치아가 아프거나 빠진 치아가 있다 1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은 뜨거운 것, 차가운 것에 시린 학생이 22.0%로 가장 많은 반면에 남학생은 입안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는 학생이 25.1%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6.29$, $p<.01$)(표 7,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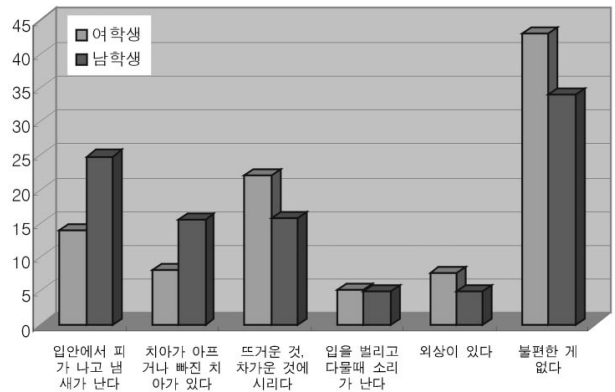


그림 3. 현재 구강 내 가장 불편한 점

표 8.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

구 분	아주 관심이 많다	조금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χ^2 (df)	p
여학생	16 (7.3)	65 (29.8)	97 (44.4)	40 (18.3)	218 (49.9)	15.66** (3)	0.001
남학생	25 (11.4)	97 (44.2)	66 (30.1)	31 (14.1)	219 (50.1)		
계	41 (9.3)	162 (37.0)	163 (37.2)	71 (16.2)	437 (100.0)		

**p<.01

7)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

치아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이 46.8%로, 관심이 없는 학생 37.2% 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5.6%로 여학생 37.1% 보다 치아건강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5.66$, $p<.01$)(표 8,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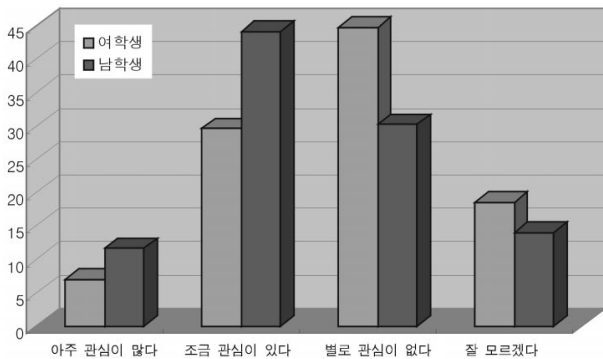


그림 4.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

8)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 습득 경로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를 TV나 라디오 등 대중 매체에서 얻는 학생이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또는 주위사람들에게서 25.6%, 의료기관 17.6%,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8.9%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를 얻는 학생은 3.0%로 매우 적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를 많이 얻었고, 남학생은 가족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많이 얻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9).

표 9.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 습득 경로

구 분	TV나 라디오 등 대중 매체	의료 기관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	가족 또는 주위사람들에게서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	기타	계	χ^2 (df)	p
여학생	63 (28.8)	41 (18.8)	8 (3.8)	49 (22.4)	25 (11.4)	32 (14.8)	218 (49.9)	6.53 (5)	0.258
남학생	64 (29.2)	36 (16.4)	5 (2.2)	63 (28.7)	14 (6.5)	37 (16.9)	219 (50.1)		
계	127 (29.0)	77 (17.6)	13 (3.0)	112 (25.6)	39 (8.9)	69 (15.8)	437 (100.0)		

9) 구강건강을 위한 정기 검진

구강건강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학생이 9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커다란 차이 없이 각각 93.6%, 92.7%로 대부분의 학생이 구강건강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표 10, 그림 5).

표 10. 구강건강을 위한 정기 검진

구 분	예	아니오	계	χ^2 (df)	p
여학생	14 (6.4)	204 (93.6)	218 (49.9)	0.21 (1)	0.647
남학생	16 (7.3)	203 (92.7)	219 (50.1)		
계	(6.9)	407 (93.1)	4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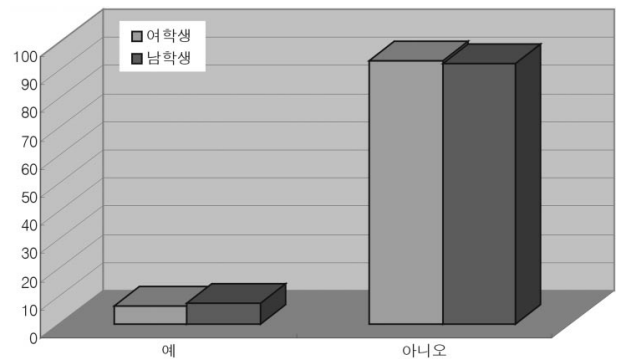


그림 5. 구강건강을 위한 정기 검진

2. 학교 구강보건교육 실태

응답자 437명 중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19.2%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1)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여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표 11, 그림 6).

표 11.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여부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여학생	44 (20.1)	174 (79.8)	218 (49.9)	0.23 (1)	0.630
남학생	40 (18.2)	179 (81.7)	219 (50.1)		
계	84 (19.2)	353 (80.8)	4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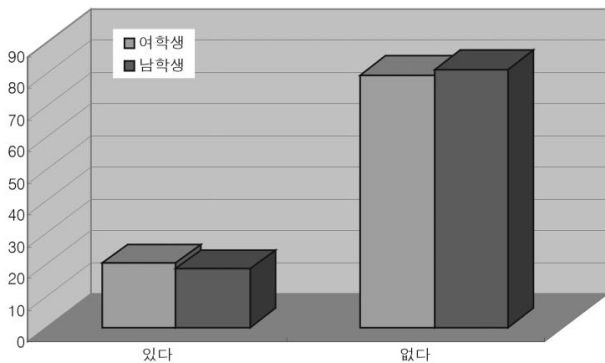


그림 6.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여부

2)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76.2%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 23.7% 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2).

표 12.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

구분	예	아니오	계	χ^2 (df)	p
여학생	164 (75.2)	54 (24.7)	218 (49.9)	0.18 (1)	0.668
남학생	169 (77.1)	50 (22.8)	219 (50.1)		
계	333 (76.2)	104 (23.7)	437 (100.0)		

표 13.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이유

구분	보기에 깨끗한 치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계	χ^2 (df)	p
여학생	42 (25.6)	15 (9.1)	96 (58.5)	11 (6.7)	164 (49.0)	3.79 (3)	0.285
남학생	55 (32.5)	21 (12.4)	84 (49.7)	9 (5.3)	169 (51.0)		
계	97 (29.1)	36 (10.8)	180 (54.5)	20 (6.0)	333 (100.0)		

3)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이유

충치나 잇몸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5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기에 깨끗한 치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9.1%,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1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서 여학생은 충치나 잇몸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였고, 남학생은 보기에 깨끗한 치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3,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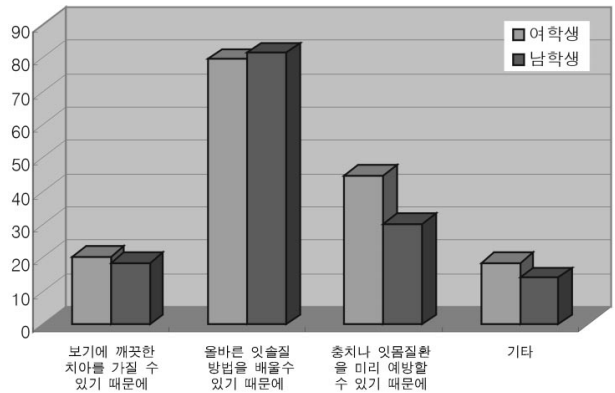


그림 7.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이유

4) 구강보건교육 참여 의향

구강보건교육에 참여 의향이 있는 학생이 64.3%로, 참여 의향이 없는 학생 35.7% 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66.2%로 여학생 62.3% 보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참여 의향이 더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14).

표 14. 구강보건교육 참여 의향

구분	예	아니오	계	χ^2 (df)	p
여학생	136 (62.3)	82 (37.6)	218 (49.9)	0.67 (1)	0.414
남학생	145 (66.2)	74 (33.7)	219 (50.1)		
계	281 (64.3)	156 (35.7)	437 (100.0)		

3. 구강위생에 대한 태도 및 인식도

1)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목적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을 위해 구강위생에 신경을 쓰는 학

생이 5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입 냄새 제거 및 치료비 절감 29.1%,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8.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을 위해 구강위생에 신경을 쓰는 학생이 많았으나 커다란 차이는 아니었다(표 15).

표 15.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목적

구 분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	입냄새 제거 및 치료비 절감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기타	계	χ^2 (df)	p
여학생	119 (54.6)	63 (28.9)	20 (9.2)	16 (7.3)	218 (49.9)	0.87 (3)	0.834
남학생	123 (56.2)	64 (29.2)	18 (8.2)	14 (6.4)	265 (50.1)		
계	242 (55.4)	127 (29.1)	38 (8.7)	30 (6.8)	437 (100.0)		

2) 구강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

구강건강 유지에 있어서 잇솔질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6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기적인 치과검진 15.4%, 선천적인 면 4.3% 순으로 나타났으며, 당분섭취제한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2.7%로 매우 적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은 구강건강 유지에 있어서 정기적인 치과검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남학생은 잇솔질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6).

표 16. 구강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

구 분	선천적인 면	잇솔질	당분 섭취 제한	정기적인 치과검진	기타	계	χ^2 (df)	p
여학생	10 (4.5)	148 (67.9)	8 (3.8)	39 (17.8)	13 (5.9)	248 (49.9)	3.13 (4)	0.537
남학생	9 (4.1)	155 (70.7)	4 (1.8)	28 (12.8)	23 (10.5)	219 (50.1)		
계	19 (4.3)	303 (69.3)	12 (2.7)	67 (15.4)	36 (8.2)	437 (100.0)		

3) 충치 예방법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치과검진 및 올바른 잇솔질 방법과 불소가 함유된 치약 사용 등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당분섭취 제한과 치아의 불소도포방법은 충치예방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표 17, 그림 8).

표 17. 충치 예방법

구 분	여학생(n=218)		남학생(n=219)		전 체(n=437)		t	p
	M	SD	M	SD	M	SD		
정기적인 치과검진	2.81	0.91	2.89	0.83	2.86	0.87	-1.00	0.319
당분 섭취제한	2.45	0.86	2.48	0.81	2.46	0.83	-0.34	0.733
올바른 잇솔질	3.21	0.80	3.26	0.77	3.24	0.78	-0.72	0.474
불소가 함유된 치약사용	2.55	0.87	2.65	0.85	2.61	0.86	-1.10	0.271
치아에 불소도포	2.35	0.83	2.43	0.79	2.40	0.80	-0.96	0.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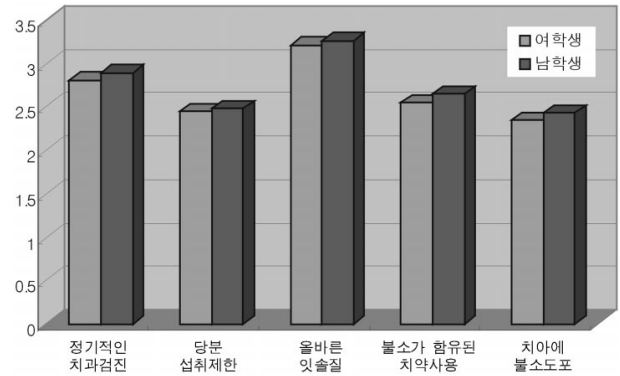


그림 8. 충치 예방법

4) 치주질환 예방법

올바른 잇솔질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3.23으로, 학생들은 올바른 잇솔질 방법이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올바른 잇솔질이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7, p<.05$). 스크레이핑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2.89로, 학생들은 스크레이핑이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크레이핑이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치실 사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2.45로 학생들은 치실 사용이 치주질환 예방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술과 담배 절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2.78로, 학생들은 술과 담배 절제가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술과 담배 절제가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18, 그림 9).

표 18. 치주질환 예방법

구 분	여학생 (n=218)		남학생 (n=219)		전체 (n=437)		t	p
	M	SD	M	SD	M	SD		
올바른 잇솔질	3.12	0.86	3.31	0.76	3.23	0.80	-2.47*	0.014
스크레이핑	2.85	0.90	2.92	0.88	2.89	0.88	-0.76	0.446
치과용 실 사용	2.44	0.84	2.45	0.89	2.45	0.87	-0.13	0.898
술, 담배 절제	2.73	0.92	2.81	0.98	2.78	0.96	-0.84	0.4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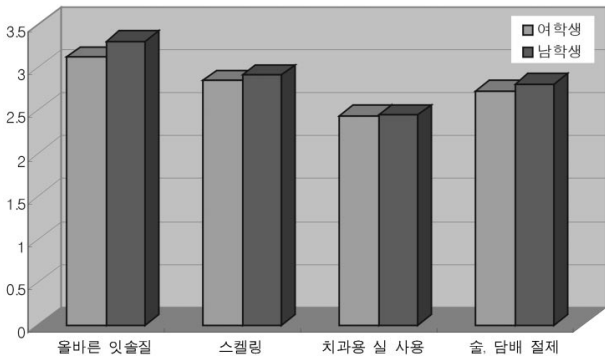


그림 9. 치주질환 예방법

4. 구강보건 지식도

잇솔질 시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학생과 모르고 있는 학생이 각각 50.1%, 49.0%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56.4%로 남학생 45.7% 보다 잇솔질 시기를 더 잘 알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81$, $p<.05$). 잇솔질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학생이 56.3%로 알고 있는 학생 43.7%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식물이 충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학생과 모르고 있는 학생이 각각 50.5%, 49.5%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충치 발생 연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학생이 68.4%로 그렇지 않은 학생 31.6%보다 많았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치실 사용이 충치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학생이 69.4%로 알고 있는 학생 30.6%보다 많았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32.1%로 남학생 29.2% 보다 많았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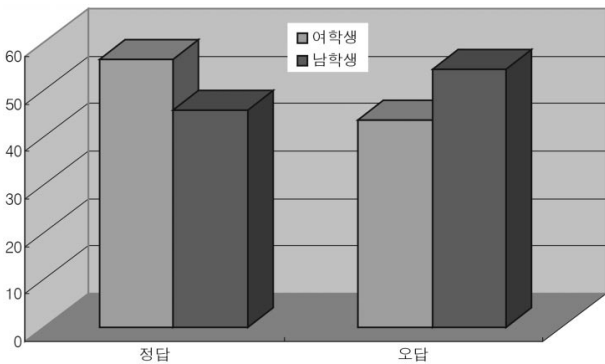


그림 10. 잇솔질 시기

스켈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학생이 88.4%로 알고 있는 학생 11.6% 보다 많았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14.6%로 여학생 8.7% 보다 스켈링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소가 충치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학생이 76.3%로 모르고 있는 학생 23.7% 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잇솔질이 충치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학생이 56.9%로 모르고 있는 학생 43.1% 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60.0%로 남학생 53.9% 보다 잇솔질이 충치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19, 그림 10).

표 19. 구강보건 지식도

구분	정답	오답	여학생	남학생	계	$\chi^2(df)$	p
잇솔질 시기	정답	123 (56.4)	100 (45.7)	223 (51.0)	4.81* (1)	0.028	
	오답	95 (43.6)	119 (54.3)	214 (49.0)			
이를 닦는 방법	정답	98 (44.9)	93 (42.4)	191 (43.7)	0.27 (1)	0.606	
	오답	120 (55.0)	126 (57.5)	246 (56.3)			
충치는 세균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음식물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110 (50.4)	111 (50.6)	221 (50.5)	0.01 (1)	0.941	
	오답	108 (49.5)	108 (49.3)	216 (49.5)			
충치는 어린이들에게만 발생한다	정답	147 (67.4)	152 (69.4)	299 (68.4)	0.19 (1)	0.661	
	오답	71 (32.6)	67 (30.6)	138 (31.6)			
치실사용은 충치예방에 효과적이다	정답	70 (32.1)	64 (29.2)	134 (30.6)	0.32 (1)	0.572	
	오답	148 (67.9)	155 (70.7)	303 (69.4)			
스켈링을 받으면 이가 깎이고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많다	정답	19 (8.7)	32 (14.6)	51 (11.6)	3.46 (1)	0.063	
	오답	199 (91.3)	187 (85.4)	386 (88.4)			
불소를 사용하면 충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정답	52 (23.8)	52 (23.8)	104 (23.7)	0.00 (1)	0.988	
	오답	166 (76.2)	167 (76.2)	333 (76.3)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잇솔질이다	정답	131 (60.0)	118 (53.9)	249 (56.9)	1.31 (1)	0.253	
	오답	87 (39.9)	101 (46.1)	188 (43.1)			
잇솔질할 때 피가 나는 것은 잇몸질환의 증상이다	정답	65 (29.8)	71 (32.4)	136 (31.1)	0.38 (1)	0.537	
	오답	153 (70.1)	148 (67.6)	301 (68.9)			
잇몸질환의 원인의 치태(프라그)이다	정답	51 (23.3)	46 (21.0)	97 (22.1)	0.27 (1)	0.600	
	오답	167 (76.7)	173 (79.0)	340 (77.9)			
잇몸질환은 점차로 진행되며 치아 골조직의 손상을 초래한다	정답	61 (27.9)	62 (28.3)	123 (28.1)	0.01 (1)	0.929	
	오답	157 (72.1)	157 (71.7)	314 (71.9)			
잇몸질환은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된다	정답	15 (6.9)	31 (14.1)	46 (10.5)	5.11* (1)	0.024	
	오답	203 (93.1)	188 (85.9)	391 (89.4)			
계		218 (49.9)	219 (50.1)	437 (100.0)			

*p<.05

잇몸질환의 증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학생이 68.9%로 알고 있는 학생 31.1% 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2.4%로 여학생 29.8% 보다 잇몸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잇몸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학생이 77.9%로 알고 있는 학생 22.1% 보다 많았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잇몸질환이 치아 골조직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학생이 71.9%로 알고 있는 학생 28.1% 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잇몸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학생이 89.4%, 알고 있는 학생 10.5% 보다 많았고, 남학생이 14.1%로 여학생 6.9% 보다 바이러스가 잇몸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5.11, p<.05$)(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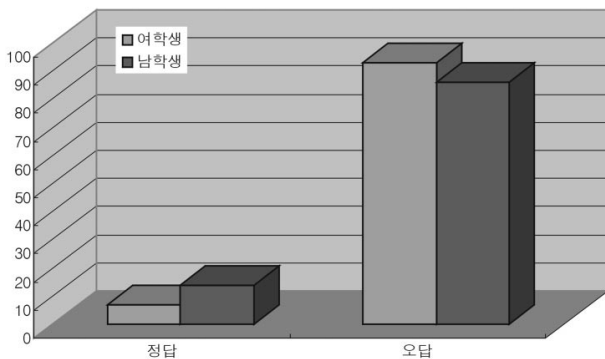


그림 11. 바이러스가 잇몸질환에 미치는 영향

표 20. 구강보건 지식도

구분	N	Mean	SD	t	P
여학생	218	4.31	2.34	0.21	0.835
남학생	219	4.26	2.51		
전체	437	4.28	2.44		

전체 12점 만점 중 평균이 4.28로, 학생들은 구강보건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이 4.31로, 남학생 4.26 보다 구강보건 지식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구강보건 지식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20).

고찰

학생 연령층에서는 우식증의 발생률이 매우 높고, 점진적으로 치주병을 야기할 수 있는 치은염도 발생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치아우식증이 계속 진행되는 연령이며 치주병이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예방관리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여건상 과중한 상급학교 진학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연령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강보건관리가 소홀해 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¹⁰⁾. 이에 저자는 청소년기의 구강보건실태 및 행동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의 중요함을 일깨우고 학교구강보건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빈도 질병순위에 치아우식증과 치주 및 치근단주위 조직질환은 상위에 기록되어 있고 구강건강관리비의 증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는 학생은 구강보건교육의 대상이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정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학교보건이 전체보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게 인정되어 왔다¹¹⁾. 또한 구강건강은 개개인이 건강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짐으로써 예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구강보건관리실태를 살펴보면 하루에 잇솔질을 3회 하는 학생이 12.0%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커다란 차이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올바른 잇솔질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충치가 있는 학생이 77.0%로 많은 학생들이 충치가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생의 약 80%가 치아우식증에 이완되어 있으며 이는 식습관, 생활환경 문화정도, 영양채질 등 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치과치료경험이 있는 학생이 8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치과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데 치과병원 이용을 하는 것 역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이며 질병행위단계에서나 질병예방행위단계 모두에서 향하는 행위가 결국은 의료를 이용하는 행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¹²⁾.

현재 구강내 가장 불편한 점에서는 입안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에 시린 학생, 남학생은 입안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는 학생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치아건강 관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었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 습득경로를 살펴보면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나 가족 또는 주위사람들에게서 주로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과질환문제시 학년이 높을수록 주위친구나 부모와의 상담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 학생이 9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학교구강보건교육실태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19.2%로 구강보건교육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알 수 있었으며, 구강보건교육이 충치나 잇몸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커다란 차이 없이 잇솔질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치과검진과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당분섭취 제한은 충치예방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치아의 불소도포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불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치주질환 예방법으로 학생들은 올바른 잇솔질 방법과 스크빙, 솔과 담배의 절제가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고 치실을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잇솔질 시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 스크빙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학생이 88.4%로, 잇솔질이 충치예방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학생이 43.1%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음식물이 충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올바른 잇솔질 방법과 치실 사용이 충치 예방에 미치는 효과, 스켈링의 효과, 불소가 충치 예방에 미치는 효과, 잇몸질환의 증상과 원인, 잇몸질환이 치아골조직 손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이러스가 잇몸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는 학생이 알고 있는 학생보다 많았고, 충치의 발생 연령과 잇솔질이 충치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구강보건교육이 요구되는 청소년기에 학교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인 구강위생인식이 시급하고 본 연구결과에서도 학교구강보건교육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보여 주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이천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구강보건의식행태를 조사, 연구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 및 교육의 방향과 목표설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2년도 9월 23일부터 10월 5일에 걸쳐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하루에 잇솔질을 1~2회 하는 학생이 8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일 3회 잇솔질을 하는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많았다.
2. 치아우식증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77%였고, 치주질환이 있는 학생은 38.0%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주질환 보다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충치나 잇몸질환이 있는데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치과치료 경험이 있는 학생은 84.0%로 대부분의 학생이 치과치료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치아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이 46.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심이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05$).
5.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를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가족 또는 주위사람들에게서 주로 듣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6.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76.2%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7.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충치나 잇몸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8. 구강건강유지에 있어서 잇솔질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69.3%로 가장 많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학생들은 정기적인 치과검진과 올바른 잇솔질방법,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충치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9. 구강보건지식정도를 살펴 본 결과 학생들의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손기찬: 부산광역시 12세 아동의 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pp.1-27, 1995.
2. 김기영: 학교치과보건의 새로운 설계, 치과보건1, pp.22, 1972.
3. 김영복: 중학교 보건교육가정설정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서남대학교 논문집3, pp.22, 1996.
4.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마득상: 한국의 발거원인 비중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1): 17-25, 1995.
5. 국민구강건강증진법, 제17-19조, 1995.
6. 이재광, 최유진: 구강보건지식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치대논문집4, pp.91, 1997.
7. 김기영: 학교치과보건의 새로운 설계, 치과보건1, pp.22, 1972.
8. 김종배, 백대일, 장기완: 구강보건교육학, 고문사, 서울, 1997.
9. Stoll, F.A.: Dental Health Education, Philadelphia Lea and Febiger. Co, 1977.
10. 김종배, 최유진, 백대일, 신승철, 김동기: 임상예방치학, 이우문화사, 서울, 1991.
11. 김동석: 공중구강보건학, 수문사, 서울, pp.349-350, 1999.
12. 이수경, 정대인, 노용환, 장기완: 전주시 국민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태도 및 상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8(2): 410-425, 1994.
13. 모운배, 이흥수, 김수남: 모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구강건강신념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8(1): 62-83, 1994.
14. 조미영: 지역사회고등학생들의 구강보건실태 및 행동에 관한 조사, 인체대학교석사논문, 1999.

(Received May 21, 2003; Accepted June 23, 2003)

